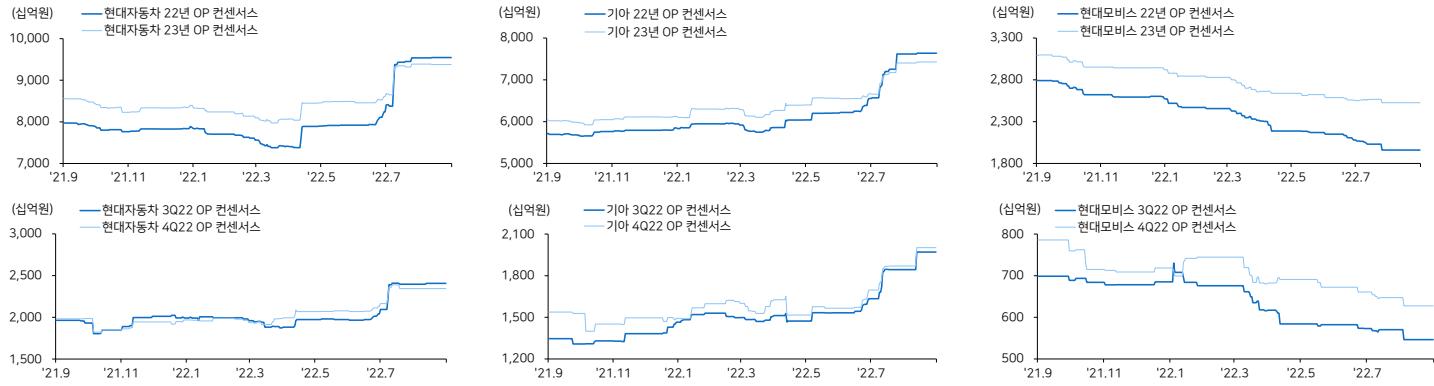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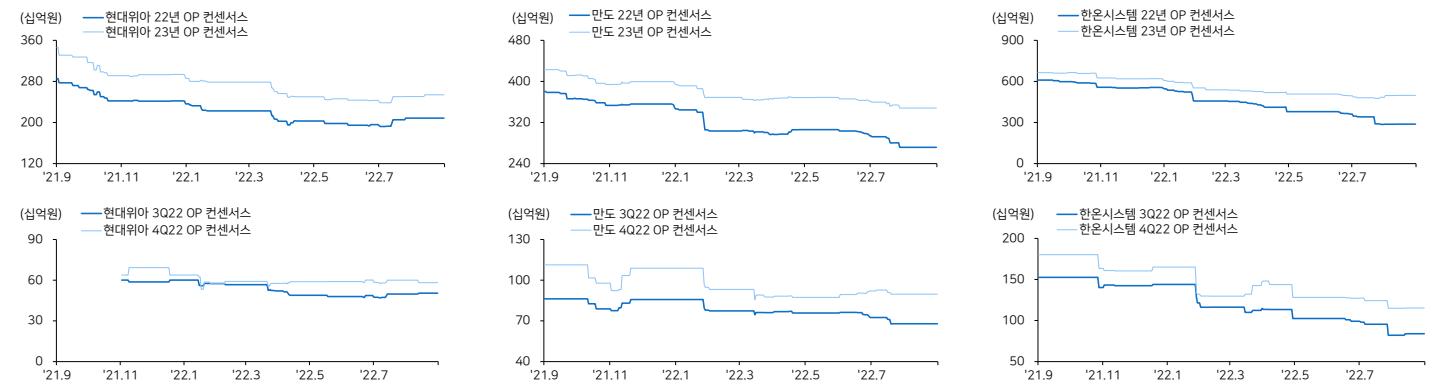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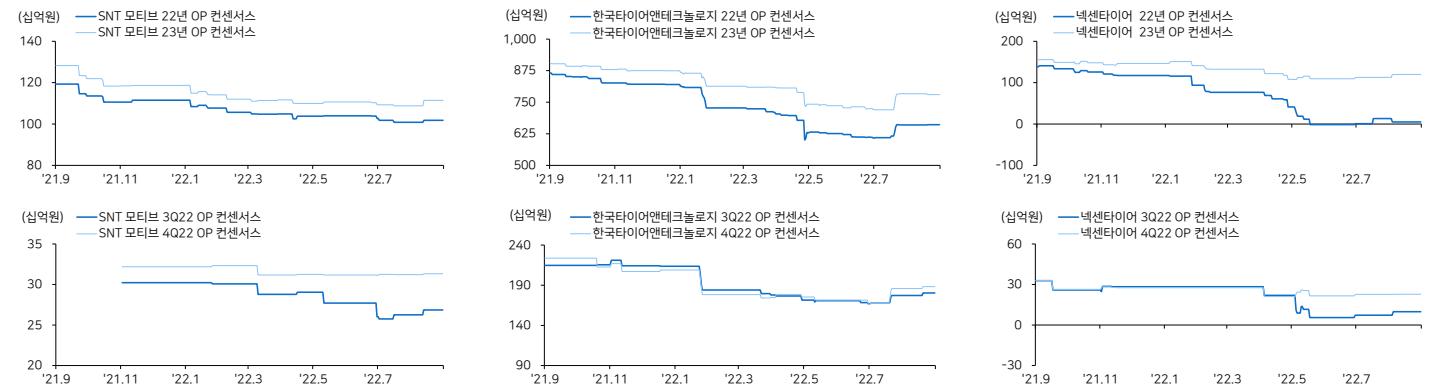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美 8월 소비자물가지수 8.3% 올라...예상치 상회 (아시아경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8.3% 상승하며 컨센서스를 상회, 휘발유 가격은 10.6% 하락, 중고차 가격은 0.1% 하락하였으며 신차 가격은 0.8% 상승.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 높은 CPI를 기록해 증시는 전반적 약세를 보임.
<https://bit.ly/3xmR8eq>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차별 혐상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미국 IRA에 따른 차별적인 국내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시작, 다만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IRA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일단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함.
<https://bit.ly/3xI0Agy>

Tesla hires senior gov. official to lead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 efforts in Canada (electrek)

테슬라는 캐나다 생산설비 건설에 앞서 온타리오 주정부 고위 임원을 고용, 광물 공급망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캐나다에서의 강력한 공급망 구축과 신공장 건설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DIUVMM>

Tesla exec hints at cheaper electric cars ahead of robotaxi service (electrek)

테슬라는 향후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기 이전에 더욱 저렴한 모델 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Model Y가 내년에 최대 생산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재확신. 현재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모델은 미국에서 46,000달러 수준.
<https://bit.ly/3Dnuvuc>

현대차, 美서 '싼타페 하이브리드'부터 생산 (한국경제)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중형 SUV 쌘타페 하이브리드를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 생산할 계획. IRA 시행으로 EV 판매 감소를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 하이브리드카를 내세워 지난달 12%를 기록한 미국 점유율을 더 확대한다는 전략.
<https://bit.ly/3RFHbkv>

전기차 기업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테슬라의 애심 (조선일보)

테슬라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부터 대용량 ESS를 활용한 미래 에너지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회사를 목표로 사업을 급속히 확장 중. 테슬라는 리튬 정제사업 진출을 밝힌 데 이어 내부적으로 3분기 ESS 생산물량을 2배 가까이 확대.
<https://bit.ly/3eNGaZO>

Here are some examples of how recent climate initiatives are boosting the US economy (electrek)

미국 IRA 법안 통과로 인해 다수의 유통업체가 미국에서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자 계획을 공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향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https://bit.ly/3DnuVAM>

Ferrari woos super rich with \$400,000, petrol-fuelled SUV (Reuters)

페라리가 브랜드 페라리가 첫 내연기관 SUV 모델 Purosangue를 397,000달러에 출시. 페라리는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내연차량을 원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페라리의 전기화 속도는 업계 대비 느린 수준.
<https://reut.rs/3ByxDRX>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